

대학도서관의 OPAC 2.0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A Survey of User Perceptions of OPAC 2.0 Service in Academic Library

이혜영 (Hey-Young R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3. 선행연구 및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의 필요성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I. 조사 및 분석 |
| 2. 연구의 방법 | 1. 이용자 인식조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2. 이용자 인식조사결과 및 분석 |
| 1. OPAC의 개념 및 발전과정 | IV. 결론 및 제언 |
| 2. OPAC 2.0 서비스의 기능 | |

초 록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Web 2.0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검색엔진의 기능을 온라인목록에 적용시킨 OPAC 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각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OPAC 2.0 이용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OPAC 2.0 서비스(주요 기능)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이와 관련된 도서검색 시 이용하게 되는 이용원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조사 및 분석결과 OPAC 2.0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검색결과'를 원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화면이 익숙하고 열람 및 대출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도서검색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의 의견이 고려된 OPAC 2.0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OPAC 2.0, Web 2.0,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인터넷 검색엔진

ABSTRACT

Currently, most academic libraries provide OPAC 2.0 service which applies Web 2.0 based-internet search engine to OPAC. The new service is for the users' convenience and so the considerations for the users' opinions are of great importance for each of service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the students as the main user for academic library on the importance for the main services of OPAC 2.0 and analyzed information sources and the reasons for book search by the virtue of this service.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the users' high expectations on accuracy and satisfaction for OPAC 2.0, and the main searching information source was the OPAC of the universities to which the users belong due to familiar screen as well as convenient reading and book loan through it. The OPAC 2.0 service needs to be improv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users' opinions.

Keywords: OPAC 2.0, Web 2.0, Academic library, OPAC, Internet search engine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onju@hanmail.net)

• 접수일: 2012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12년 2월 29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인 온라인목록은 이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자료의 특정정보를 이용한 검색과 접근으로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은 오늘날에도 온라인목록의 기본이 되고 있다. 과거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던 전통적인 온라인목록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으며 이는 다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발전 및 도서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온라인목록은 이용자의 정보자료 검색에 새로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터넷과 웹의 활성화로 도서관 이용자의 변화된 이용행태에 맞게 개선되고 있다. 즉 이용자들은 개선된 온라인목록과 인터넷 검색엔진 그리고 웹이라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목록의 개선은 Web 2.0을 기반으로 사용의 편리성에 기초를 둔 OPAC 2.0의 실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OPAC 2.0은 Web 2.0 환경에서 이루어진 검색엔진, 웹 포털 등의 기능 일부를 도입하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엔진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 및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대학도서관이 기존의 온라인목록을 기본으로 하는 OPAC 2.0으로의 개선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인 OPAC 2.0 서비스 개선 및 제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PAC 2.0은 Web 2.0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Web 2.0 기반의 인터넷 검색엔진 및 웹 기능이 적용된 온라인목록 각각의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 및 반영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OPAC 2.0 제공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OPAC 2.0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앞으로의 OPAC 2.0 서비스 실시 및 개선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OPAC 2.0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고려한 OPAC 2.0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 OPAC 2.0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조사를 위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질문지 조사결과 및 분석을 통하여 대학도서관 OPAC 2.0 서비스에 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OPAC의 개념 및 발전과정

OPAC의 정의를 2010년 판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단말기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운영되는 도서관 목록. 도서관 이용자는 직접 서지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¹⁾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이 OPAC의 전통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차세대’, ‘제3세대’, ‘21세기 목록’이라고 불리는 OPAC 2.0에 대하여 Wilson(2007)은 “Web 2.0의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온라인 목록에 적용한 어플리케이션”²⁾이라고 정의하였다. Web 2.0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OPAC 2.0은 기존의 OPAC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목록의 안팎을 향해하는’³⁾ 목록의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한다. 즉 OPAC 2.0은 기존의 목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이외의 정보-이용자 평가, 서평, 다양한 관련 자료, 태그 제공 등-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OPAC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온라인목록은 1960년 대 말과 1970년대 초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에 각 도서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⁴⁾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온라인목록에 대하여 Hildreth는 온라인목록은 이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를 찾는 도구에서부터 검색과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이 향상된 정보검색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⁵⁾ 온라인목록에 대한 Hildreth의 주장은 ‘이미 알고 있는 자료를 찾는 도구에서부터’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부가된 오늘날의 OPAC 2.0 개념까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목록 발전과정에는 탐색 및 접근

1) 김태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236.

2) Katie Wilson, “OPAC 2.0: Next generation online library catalogues ride the Web 2.0 wave!,” *Online Currents*, Vol.21, No.10(2007), pp.406-413.

3) IFLA,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8.
 <http://www.ifla.org/VII/s13/icc/imeicc-statement_of_principles-2008.pdf> [cited 2011. 12. 26].

4) 박수희, 대학도서관 온라인열람목록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p.6
 이동규, 대학도서관 웹 기반 온라인목록의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p.8.

5) C. R. Hildreth, Pursuing the ideal: generations of online catalogs. In Aveney, B., Butler, B (Eds), *Online catalogs, Online Reference, Converging Trends*(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4), pp.31-56.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2호)

의 특징, 상호작용 및 대화방식, 출력 형식내용, 이용자 도움말기능 등의 기능적 요소와 커뮤니케이션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⁶⁾. 오늘날의 온라인목록은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Web 2.0의 기술을 기반으로 OPAC 2.0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엔진과 유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목록은 도서관 소장 정보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에는 변함없이 편리한 부가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OPAC 2.0 서비스의 기능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제3세대 온라인목록은 도서관과 이용자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이용자에게 도서관 소장정보에 관한 접근을 편리하게 제공해 주었다. 이후 웹의 발전으로 2005년 Web 2.0 컨퍼런스에서 Web 2.0에 관한 확장된 정의가 발표되고 이를 토대로 한 Library 2.0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면서 온라인목록에도 OPAC 2.0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⁷⁾ Web 2.0의 기술이 뒷받침되는 OPAC 2.0 서비스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PAC 2.0은 기존 OPAC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검색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원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입수, 검색 및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 사서들이 목록 규칙 등에 따른 통제된 목록과 이용자들의 참여와 온라인 서점, 각종 문헌 DB로부터 얻어진 정보 등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OPAC 2.0의 인터페이스와 정보제공의 기반에는 Open API나 RSS, 블로그 등 Web 2.0 기술들이 뒷받침되어 있다.⁸⁾

구중역은 도서관 OPAC은 단순화된 접근을 기본으로 가치 있는 목록 데이터에 고급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도서관 및 기관의 자원을 서로 조합시켜 활용도와 검색성을 높이며, Open API와 Open URL을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장애 없이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자유롭게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자원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한 웹 브라우저와 Web 2.0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도서관의 OPAC 검색 기능과 다양한 검색 결과에 대한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변경이 요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⁹⁾

Casey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OPAC보다는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도서관 OPAC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OPAC이

6) *Ibid.*

7) 박미성, "Web 2.0 기술 적용 사이트 분석을 통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p.144 재인용.

8) 상계논문, p.152 재인용.

9) 구중역, 이응봉, "북마크릿을 활용한 LibraryLookup 서비스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2006), p.55.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¹⁰⁾ 그리하여 OPAC 2.0(Catalog 2.0)¹¹⁾이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였다. Casey가 제안한 OPAC 2.0 기능들은 일반적인 검색엔진(포털사이트)과 온라인 서점에서 이용자들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들이 대부분이다. 맞춤법 검사, 신뢰할 수 있는 기본검색, 불리안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검색, 전문의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해 주는 전문(full text)검색, 같은 흥미나 목적을 가지는 사람들의 검색을 참고하는 유사검색, 콘텐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검색용 꼬리표인 키워드 또는 태그를 다는 태깅 기능, 키워드와 관련성 높은 페이지를 상단에 두는 순위화 방식인 Relevancy Ranking 기능,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와 관련된 카테고리를 이용해 검색하고 찾아내는 방식인 패킷화 기능, 제목·저자·순위·후기 등의 복합적인 옵션을 제공하더라도 검색행위는 간결한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간결한 인터페이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리뷰를 보여주는 전문적인 리뷰기능, 이용자가 쓰는 리뷰기능, 유용한 링크의 추천 기능, RSS 구독기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Hildreth는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미래의 온라인목록 기능으로 “E³ OPAC”을 제안하였다.¹²⁾ E³ OPAC은 Enhanced Catalog, Expanded Catalog, Extended Catalog 등을 칭하는 것으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Enhanced Catalog는 인터페이스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어 검색, 주제정보, 전거통제, 적합성 피드백, 하이퍼텍스트 브라우징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더욱 향상된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Expanded Catalog는 수록 데이터 또는 기능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차, 초록, 이미지, 원문 등을 추가하여 접근 및 검색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문헌제공시스템과 연결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Extended Catalog는 검색대상 목록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자관 중심의 목록 검색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 또는 전 세계 도서관의 소장 자료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인쇄자료 중심의 물리적 도서관과 디지털화된 전자자원 중심의 가상도서관을 모두 연결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검색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Schneider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OPAC으로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검색엔진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적합성 순위로 검색결과 제공, 패킷 기반 및 네비게이션 브라우징, 맞춤법 검사, 정교한 고급검색, 편리한 결과 내 재검색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¹³⁾

10) Michael Casey, *Library 2.0 and Beyond: Innovative Technologies and Tomorrow's User: Chap2. Looking Toward Catalog 2.0* (Libraries Unlimited, 2007), pp.15-23.

11) Casey는 상계서에서 OPAC 2.0을 'Catalog 2.0'이라 칭하였다.

12) C. R. Hildreth, *Advancing toward the E3 OPAC: the imperative and the path*, In Van Pulis, N (Eds), *Think Thank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Online Catalog: Proceedings* (ALA Midwinter Meeting, Chicago, January 11-12)(1991), Reference and Adult Services Divis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p.17-38.

13) Karen G. Schneider, *How OPACs Suck, Part2: The Checklist of Shame*, 2006.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2호)

Breeding은 차세대 온라인목록 즉 OPAC 2.0의 기능으로 단일검색 인터페이스, 도서관 로컬과 원격자원의 통합 검색결과, 철자 검사를 통한 검색어 확장, 검색된 자료와 유사한 다른 자료를 모두 검색해 주는 기능, 적합성 순위로 검색결과 제공, 패킷 기반 네비게이션 및 브라우징, 태그·서평·코멘트·평점 등의 이용자 참여기능, Google, Amazon, LibraryThing 등을 이용한 풍부한 콘텐츠 제공, FRBR 기반 검색결과와 그룹화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¹⁴⁾

Pattern은 차세대 온라인목록의 주요 기능으로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OPAC, 검색어 제안, 풍부한 콘텐츠, RSS 피드, 패킷/패킷화된 브라우징, 추천자료, 이용자 코멘트 및 서평 추가, 이용자 태그 추가, 개인화된 제안, 이용자 평점 추가 등의 기능을 제안하였다.¹⁵⁾

마지막으로 구중억·곽승진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환경에 맞는 OPAC 2.0 기능으로 패킷방식의 검색결과 제공, 적합성 순위 검색결과 제공, 개인화 서비스 제공, Open API를 사용한 표지·책소개·저자소개·목차·서평 제공, 타 기관과의 정보검색 결과 연계 제공, 검색어 철자 오류 교정 및 검색어 제안, 이용자들의 태그·서평·코멘트·평가 기능, 추천도서기능 등을 제안하였다.¹⁶⁾

이상의 연구자들이 제안한 OPAC 2.0의 기능들을 종합해 보면, OPAC 2.0은 기존의 OPAC과는 달리 Web 2.0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참여, 공유,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검색엔진 및 온라인 서점과 마찬가지로 OPAC 2.0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에 관하여 참여 및 공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일일이 웹 사이트를 검색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검색엔진에서 얻을 수 있는 검색결과들처럼 OPAC 2.0에서도 다양한 검색결과들을 획득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및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의 필요성

OPAC은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정보검색 및 이용행태에 맞추어 접근의 편리성 및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구중억·이응봉은 웹브라우저와 Web 2.0 기술의 효과적인 결합으로 OPAC의 검색기능을 향상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¹⁷⁾ 이를 위하여 Tim O'Reilly의 Web 2.0과 Bonaria Biancu의 Library 2.0

<http://www.techsource.ala.org/blog/2006/04/how-opacs-suck-part2-the-checklist-of-shame.html> [cited 2011. 12. 13].

14) Marshall Breeding, "Thinking about Your Next OPAC," *Computers in Libraries*, Vol.27, No.4(2007), pp.28-30.
Marshall Breeding, "Next-Generation Library Catalogs," *Library Technology Reports*, Vol.43, No.4(2007).
Marshall Breeding, *Next Generation User Interfaces: Delivering content and services for today's Web-savvy library patrons*, 2008, http://www.senylrc.org/Marshall_nextgen_interfaces.ppt [cited 2011. 12. 13].

15) Karen G. Schneider, *How OPACs Suck, Part2: The Checklist of Shame*, 2006.
<http://www.techsource.ala.org/blog/2006/04/how-opacs-suck-part2-the-checklist-of-shame.html> [cited 2011. 12. 13].

16) D. Pattern, "Are you happy with your Opac?" *Library & Information Update*, Vol.6, No.10(2007), pp.32-34.

17) 구중억, 이응봉, "북마크릿을 활용한 LibraryLookup 서비스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3

의 아이디어 맵을 활용하여 OPAC에 적용 가능한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태그 또는 키워드 기술 제공, 온라인 서점 또는 종합목록 등의 웹 페이지에서 오픈소스인 북마크릿(Bookmarklet)을 적용하여 자관뿐 만 아니라 근접 도서관의 소장 유무를 표시해 주는 룩업(Lookup) 서비스 제공, 이용자가 개인화 홈페이지에서 도서의 대출 상태나 희망도서 신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고유 링크 제공 그리고 온라인 도서 목록 레코드를 저작 형태로 묶어서 계층적으로 표시하는 것 등이다.

노지현은 온라인목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은 온라인목록은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료의 소장위치나 대출상태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특정 주제에 적합한 자료의 선택과 평가를 위해 온라인 서점 등과 같이 초록, 목차, 서평 등 유용한 정보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¹⁸⁾ 이 연구는 이용자들로부터 기존 OPAC의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차세대 온라인목록인 OPAC 2.0에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시켜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미성은 Web 2.0 기술이 출현함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미 웹 상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도서관 정보시스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OPAC에 적용시킬 수 있는 RSS, 태깅, 아작스, 매쉬업, 팟캐스트 등과 같은 Web 2.0 기술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도서관 정보시스템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목록, 검색, 부가서비스 영역에서 활용 및 적용될 수 있다 하였다.¹⁹⁾

Pattern은 2007년 3월 영국 및 미국 등 전 세계 사서들과 도서관 직원들 729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온라인목록의 주요 기능 및 자관의 OPAC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²⁰⁾ 각각의 문항을 10점 척도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OPAC의 중요도는 평균 9.2, 자관의 OPAC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2 그리고 이용자에게 자관의 OPAC이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평균 4.6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검색 및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OPAC의 중요도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할 만큼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나 이용자에게 자관의 OPAC이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균은 4.6이라는 그리 높지 않은 점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정보검색 및 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서관에 적용시키지 않은 결과이다. 이용자들이 수시로 쉽게 접근하게 되는 검색엔진이나 온라인 서점이 가지고 있는 접근 용이성과 사용 편리한 기능들을 OPAC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Campbell과 Fast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OPAC과 웹 검색에 대한 인식을 비교·조사하였다.²¹⁾

호(2006), pp.49-68.

18) 노지현,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목록의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 pp.146-150.

19) 박미성, "Web 2.0 기술 적용 사이트 분석을 통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pp.147-155.

20) David Pattern, "Are you happy with your Opac?", *Library & Information Update*, Vol.6, No.10(2007), pp.32-34.

21) D. G. Campbell & K. V. Fast, "Panizzi, Lubetzky and Google: How the Modern Web Environment is Reinventing the Theory of Cataloguing,"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Vol.28,

문헌정보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 소수를 선정하여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에게 대학도서관 OPAC과 구글을 검색하게 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학생들은 웹 검색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OPAC이 구조화되고 정보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웹 검색을 선호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이러한 현상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검색엔진이 사용하기 편리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인터페이스가 단순하면서도 간결하다는 것이다. 즉 이용자들은 정보를 검색 및 획득하는데 있어 사용의 편리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복잡하지 않은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결과 또한 OPAC 2.0 기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도 정보환경의 변화와 OPAC 2.0 관련 연구 및 사례 등의 내용을 토대로 Web 2.0의 기술을 적용시킨 OPAC 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OPAC 2.0 서비스의 중요도 인식에 대하여 대학도서관 주 이용자들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없다.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의 활발한 이용을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도 인식 및 의견 조사를 통해 이를 반영한 OPAC 2.0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Ⅲ. 조사 및 분석

1. 이용자 인식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OPAC 2.0 서비스의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인구통계학적인 질문과 이용자들이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및 그 이유 그리고 OPAC 2.0 서비스에 관련된 본문 문항 1~2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문항 20은 주관식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질문지 조사에 앞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해 대학생들이 서로 달리 이해하거나 애매한 문장 및 단어들은 수정하여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학교·학년·성별 및 학과의 구분 없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수업시간 및 인터넷 메일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질문지는 총 470부를 배포하여 467부를 수거함으로써 99%의 수거율을 보였다. 이 중 한 페이지 정도와 모든 문항을 작성하지 않은 불성실한 질문지 9부를 제외한 458부가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 18.0K를 사용하였다.

No.3(2004), pp.25-38.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OPAC 2.0 서비스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과 기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주된 질문지는 Pattern이 영국, 미국 등 각국의 사서들과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세대 온라인목록의 주요 기능에 대한 중요성 조사 내용²²⁾과 구중역·곽승진이 제안한 OPAC 2.0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학자들의 의견 중 본 연구에 필요한 OPAC 2.0 기능을 선정하였다.²³⁾ 이러한 질문지 구성은 이용자와 사서 및 도서관 직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OPAC 2.0 기능들이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 및 도서관 직원의 인식이 어느 정도는 이용자들의 인식과 일맥상통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구중역·곽승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국내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환경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 <표 1>은 앞에서 기술한 Pattern 및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주요 기능 내용과 구중역·곽승진이 제안한 개선방안들 중 본 연구 설문지 조사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본 연구 설문지에 사용된 OPAC 2.0 주요 기능

주요 기능	
-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OPAC	- '이것을 찾으셨습니까?'라는 검색어 제안
- 풍부한 콘텐츠(책 표지·책 소개·저자소개·목차·서평·초록·이미지 등 제공)	- RSS피드
- 패킷/패킷화된 브라우저	- '이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함께 대출한 자료...' 추천도서 기능
- 이용자 참여 기능(태그, 평점)	- 개인화 서비스
- 적합성 순위 검색결과	- 타 기관과(지역과 국가 소장 자료)의 정보검색 결과 연계
- 검색어 철자 오류 교정	- 기본검색
- 전문(full text)검색	- 유사검색
- 유용한 링크 추천 기능	- 결과 내 재검색
- 철자 검사를 통한 검색어 확장	- 소장 및 대출상황
- 협력도서관간의 검색결과 링크	- 지역도서관의 종합목록 검색 링크

<표 1>에 제시한 항목들은 Pattern과 구중역·곽승진이 제안한 OPAC 2.0 주요 기능들을 토대로 다른 학자들이 제안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 다르게 표현한 기능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위에 제시된 항목들 중 '전문(full text)검색'과 '결과 내 재검색'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기능들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을 위해 추가로 선정하였다. 우선 '전문(full text)검색' 기능은 현재 구글(Google) 북서치(booksearch)에서 저작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도서들에 대한 전문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기능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과 원문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22) D. Pattern, "Are you happy with your Opac?" *Library & Information Update*, Vol.6, No.10(2007), pp.32-34.
 23) 구중역, 곽승진,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pp.61-88.

시점에서 대학도서관 OPAC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도서의 전문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고려해 볼 사항이다.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은 일반 인터넷 검색엔진 및 학술기관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기능으로 이용자들의 검색결과 건수를 줄이고 적합성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다. 고급검색이나 확장검색은 처음부터 여러 항목에 체크를 하면서 검색을 시작하는 기능으로 체크 항목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정확한, 적합성 있는 검색결과를 얻기 어렵다. 키워드를 이용한 간단한 기본검색을 한 후 검색결과 화면에서 제시해 주는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적합성 있는 검색결과를 얻는 것이 이용자들에게는 편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학자들이 제시한 기능은 아니지만 대학도서관 OPAC 2.0의 좀 더 활발한 이용을 위하여 검색에 사용되는 도서관 용어 및 전문용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기본적으로는 키워드검색, 서명검색, 불리언검색, ISBN검색 등과 Web 2.0의 기능들이 OPAC 2.0에 많이 적용됨에 따라 OPAC 2.0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Tagging검색, 메타검색 등과 같은 용어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용자들의 검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이용자 인식조사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Web 2.0 기능을 기반으로 한 OPAC 2.0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중요도 인식과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 문항 1~19 답변율 및 문항 20 답변과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및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458부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학년별 기초통계량

학 년	N	%
1	157	34.3
2	65	14.2
3	113	24.7
4	123	26.9
합 계	458	100

샘플링 결과 1학년이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학년이 26.9%, 3학년이 24.7%, 마지막으로 2학년이 14.2%의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위에서 제시한 분석내용 및 결과들이다.

1) 본문 문항 1~19 답변율 및 문항 20 답변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 문항 중 본문 문항 1~19는 Web 2.0을 기반으로 한 OPAC 2.0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보기 문항은 '① 매우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OPAC 2.0 서비스에 대하여 '보통'과 '중요함' 두 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3>은 본문 문항 1~19 중 '보통'이라는 답변이 나온 답변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3> 본문 문항 중 '보통' 답변율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합계
4	대출한 자료의 추천 서비스	36 (7.9)	125 (27.3)	161 (35.2)	104 (22.07)	32 (7.0)	458 (100) ²⁴⁾
6	이용자 작성 태그 서비스	14 (3.1)	67 (14.6)	170 (37.1)	148 (32.2)	59 (12.9)	458 (100)
14	유사검색	12 (2.6)	62 (13.5)	184 (40.2)	155 (33.8)	44 (9.6)	457 (99.8)
17	키워드 검색창 제공	6 (1.3)	44 (9.6)	186 (40.6)	172 (37.6)	49 (10.7)	457 (99.8)
19	키워드 제안	9 (2.0)	67 (14.6)	183 (40.0)	166 (36.2)	32 (7.0)	457 (99.8)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자들은 OPAC 2.0 서비스에 대하여 5개의 문항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OPAC 2.0 서비스 제공 시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OPAC 2.0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통'이라 인식하고 있는 문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4, 14, 19는 다른 사람의 검색결과 및 관련 키워드를 참조하는 간접적인 서비스이다. 문항 4와 14의 내용들은 이용자가 직접 원해서 획득하게 되는 결과가 아닌 다른 이용자들의 검색결과로부터 유사한 결과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검색결과가 방대해 질 수 있으며 방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용자들은 결과 내 재검색 서비스를 다시 원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검색결과를 참조함으로써 더 방대한 검색결과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문항 19도 이 두 문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제안된 다른 키워드를 통해 많은 양의 검색결과를 얻기 보다는 본인의 키워드만으로 만족한 검색결과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항 6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로 OPAC 2.0 외에 일반적인 검색엔진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접하게 되는 서비스이다. 태그 서비스는 이용자 참여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반면 태그 작성 시 어떠한 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가장 큰 단점이라 할

24) 수치 제시는 N(%)임.

수 있다. 이용자들이 하나의 도서에 대해 다양한 태그를 작성해 놓음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도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피상적인 단어들을 태그로 작성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러한 점을 직접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OPAC 2.0 서비스에서 이용자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태그 작성 시 어느 정도의 규칙적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항 17의 결과를 보면, 한 개의 검색창을 통한 키워드 검색보다는 검색항목별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가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만족한 결과를 줄 수 있다. 한 개의 검색창을 통한 키워드 검색결과는 광범위한 검색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결과 내 재검색 서비스를 다시 원할 것이다. 문항 17의 인식 결과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검색결과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아래 <표 4>는 본문 문항 1~19 중 '중요함'이라는 답변이 나온 답변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4> 본문 문항 중 '중요함' 답변율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합계
1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목록	8 (1.7)	19 (4.1)	86 (18.8)	228 (49.8)	117 (25.5)	458 (100)
2	'이것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검색어 제안	7 (1.5)	63 (13.8)	115(25.1)	206 (45.0)	67 (14.6)	458 (100)
3	검색결과와 관련 있는 자료 제시 및 연결	5 (1.1)	33 (7.2)	103 (22.5)	222 (48.5)	94 (20.5)	457 (99.8)
5	풍부한 콘텐츠 제공	3 (0.7)	28 (6.1)	103 (22.5)	197 (43.0)	127 (27.7)	458 (100)
7	검색어 철자 오류 수정 서비스	7 (1.5)	33 (7.2)	98 (21.4)	214 (46.7)	106 (23.1)	458 (100)
8	적합성·인기도 순위로 검색결과 제공	5 (1.1)	13 (2.8)	146 (31.9)	200 (43.7)	93 (20.3)	457 (99.8)
9	협력 및 인접되어 있는 도서관의 검색결과 링크	4 (0.9)	43 (9.4)	126 (27.5)	185 (40.4)	99 (21.6)	457 (99.8)
10	결과 내 재검색	1 (0.2)	23 (5.0)	70 (15.3)	198 (43.2)	165 (36.0)	457 (99.8)
11	RSS피드	3 (0.7)	26 (5.7)	120 (26.2)	208 (45.4)	101 (22.1)	458 (100)
12	개인화 홈페이지 서비스	8 (1.7)	29 (6.3)	125 (27.3)	200 (43.7)	95 (20.7)	457 (99.8)
13	도서의 전문(full text) 제공	5 (1.1)	37 (8.1)	129 (28.2)	181 (39.5)	105 (22.9)	457 (99.8)
15	유용한 사이트 및 웹 페이지 추천 및 링크	6 (1.3)	56 (12.2)	161 (35.2)	194 (42.4)	41 (9.0)	458 (100)
16	검색용어와 도서관용어 및 전문용어 제공	13 (2.8)	69 (15.1)	159 (34.7)	162 (35.4)	55 (12.0)	458 (100)
18	적합한 자료 및 관련정보의 통합결과 제공	5 (1.1)	44 (9.6)	148 (32.3)	190 (41.5)	71 (15.5)	458 (100)

위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중요함’이라 인식하고 있는 문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1 교내를 포함한 교외 등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목록’에 대해서는 Pattern²⁵⁾이 조사한 내용의 결과와 유사하게 중요성이 높게 나왔다. 이것은 온라인목록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서와 이용자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항 2, 7, 8, 10은 각각 검색결과에 대하여 ‘이것을 찾으셨습니까?’라는 검색어 제안, ‘검색어 철자 오류 수정 서비스’, ‘검색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은 적합성 · 인기도 순위로 검색결과 제공’ 그리고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한 번 더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검색결과 제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항 10 검색결과가 방대할 경우 결과 내 재검색’은, 이용자들은 기존의 OPAC을 이용하면서 방대한 검색결과가 출력되었을 경우 각각의 정보를 브라우징하거나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정보들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용자들은 OPAC 2.0에서도 일반적인 검색엔진 및 학술기관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검색결과를 획득하기를 원한다. 이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목록’과 함께 온라인목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서비스이다.

문항 3, 5, 15, 18은 이용자가 도서검색 시 직접적으로 원하는 검색결과는 아니지만 검색결과와 관련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검색결과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학술기관이나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이용자들의 검색결과와 관련 있는 다른 검색결과들을 통해 이용자들은 하나의 검색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뜻밖의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항 9는 소속 대학도서관과 협력을 맺고 있는 타 도서관의 검색결과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상호대차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항 11, 12는 RSS와 개인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함으로써 도서관 홈페이지로 접속하지 않고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문항 13은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서 원문제공 서비스를 OPAC 2.0에서도 제공할 시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현재 도서관에서 e-book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원문을 제공하는 도서 선정에 몇 가지 조건²⁶⁾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구글을 통해서 모든 도서의 원문을 제공받지는 못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도서원문을 서비스

25) David Pattern, *Ibid*.

26) “구글은 2009년 11월 14일 자정 가까운 시간, 미 법무부와 독일 · 프랑스 정부를 비롯한 중국 등 많은 나라 도서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해 아날로그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은 영미권 도서에 한하며, 새 책은 제외하겠다는 화해안을 내놓았다. 새 사업을 할 경우 각국 대표들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떠돌이 도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스캐닝 후 발생한 저작권료 관리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로버트 단턴 지음, 성동규 외 2인 옮김, 책의 미래(서울 : 교보문고, 2011), p.10.

하고자 한다면 일반 검색엔진 구글과 차별화를 둔 서비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항 16은 OPAC 2.0에서 사용되는 도서관 용어 설명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키워드검색, 블리언검색, ISBN검색' 등과 같은 기존 온라인목록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용어들은 OPAC 2.0에서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다. 도서관 용어 중 검색 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아두면 정확한 검색결과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용어 설명 서비스는 현재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문항 20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서비스에 관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점'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 즉 온라인목록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내용들이다. 458명 중 총 131명의 응답자들이 문항 20에 답변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여러 유사한 답변들은 하나로 정리하였다. 다음 <표 5>는 응답자들의 답변들 중 OPAC 2.0의 주된 서비스와 관련 있는 답변들만을 제시한 것이다.

<표 5> OPAC 2.0 서비스와 관련 있는 답변

통합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대학도서관 외에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통한 소장도서 검색 제공 • 대학도서관 및 다양한 학술기관과의 통합검색 제공
풍부한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도서관이 목차 및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나머지 소장도서로의 확대 서비스 제공 • 검색결과가 너무 단편적이다. • 도서와 관련한 저자의 블로그나 서평, 전자자료도 함께 제공 • 연관검색과 대출빈도 등을 기반으로 한 도서추천기능 제공 • 도서의 세부사항을 볼 경우 간단한 목차정보만이라도 제공 • 검색결과와 관련 있는 도서와 사이트 정보 및 링크 제공 • 원문과 간략한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정보 제공
검색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키워드가 아닌 경우(정확한 도서명이 아닌 경우)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도서검색 시 검색어자동완성기능 제공 • 검색 키워드 제안 • 키워드를 이용한 도서검색이 수월하지 않다. • 검색어가 틀렸을 경우 수정어 기능 제공 • 도서검색 시 검색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ISBN이나 ISSN 등과 같은 용어 설명 제공
검색결과 제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내 재검색 기능 제공 • 검색 시 적합도가 높은 순으로 검색결과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결과가 너무 복잡하고 자세하게 제공된다. 간단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 검색결과 정보가 많은 것은 좋지만 링크 정보가 너무 많아 도서를 검색할 때 좀 번거롭다. • 키워드 이외의 다양한 검색방법 제공(키워드 검색만을 이용해서는 원하는 도서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다.)

위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소속 대학도서관의 온라인목록 서비스개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들을 통해 이용자들은 OPAC 2.0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으로 보아 OPAC 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서관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의견들을 보면 오히려 OPAC 2.0 서비스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용자들도 있다. 즉 관련 검색결과가 너무 많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다. 또 다른 기타 의견으로는 키워드 검색 이외의 다양한 검색 방법을 원하고 있다. 즉 이용자들은 키워드 검색보다는 다양한 검색항목을 이용하여 정확한 검색결과를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본문 '문항 17의 검색항목(블리언, 고급검색, 서명, 저자, 주제명, 단순검색, 상세검색 등) 선택이 필요 없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한 개의 검색창 제공'을 '보통'이라 인식한 점과 유사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2)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한 답변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과 그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OPAC 2.0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학 년	이용하는 정보원					합 계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포함한 기타 학술기관 사이트	인터넷 검색엔진	온라인 서점	기타	
1	41 ²⁷⁾ (26.8)	13 (8.5)	66 (43.1)	30 (19.6)	3 (2.0)	153 (100)
2	29 (46.0)	7 (11.1)	20 (31.7)	5 (7.9)	2 (3.2)	63 (100)
3	51 (47.2)	14 (13.0)	26 (24.1)	16 (14.8)	1 (0.9)	108 (100)
4	47 (39.2)	25 (20.8)	32 (26.7)	16 (13.3)	0 (0)	120 (100)
합 계	168 (37.8)	59 (13.3)	144 (32.4)	67 (15.1)	6 (1.4)	444 (100)

위의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으로는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2.4%를 차지한 '인터넷 검색엔진' 그리고 '온라인 서점',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포함한 기타 학술기관 사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 가장 높은 %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인터넷 검색엔진'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인터넷 검색엔진'을, 2, 3, 4학년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 목록'을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년은 '인터넷 검색엔진' 다음으로 이용하는 정보원이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으로, 2, 3, 4학년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다

27) ()위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N을 나타냄. <표 7>의 기재방식도 이와 동일.

음으로 이용하는 정보원이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답변으로는 '동네 도서관(2명)', '오프라인 서점(2명)', '공공도서관 온라인목록(1명)'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다(1명)'.는 답변이 나왔다. 도서검색 시 정보원의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도서검색 시 정보원 이용 이유

정보원	정보원 이용 이유				
	이용방법이나 검색 화면 및 결과화면이 이용에 익숙하다.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도서정보를 검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타	합 계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92 (54.8)	30 (17.9)	22 (13.1)	24 (14.3)	168 (100)
인터넷 검색엔진	59 (42.1)	74 (52.9)	3 (2.1)	4 (2.9)	140 (100)
온라인 서점	25 (37.3)	32 (47.8)	1 (1.5)	9 (13.4)	67 (100)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포함한 기타 학술기관 사이트	2 (3.4)	26 (44.1)	30 (50.8)	1 (1.7)	59 (100)

위의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4가지를 제시하여 이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도서검색 시 정보원 이용 이유는 각 학년별로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학년별로 구분지어 각각 제시하기 보다는 학년 전체 응답자들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보원 배열순서는 전체 응답자 %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우선 도서검색 정보원으로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이용방법이나 검색화면 및 결과화면이 이용에 익숙하다.'라는 답변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답변한 응답자들은 도서관 온라인목록이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온라인 서점처럼 하나의 검색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익숙한 이용방법이나 화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획득하려는 이유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수시로 변하는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온라인 서점의 인터페이스보다는 인터페이스 변화가 빈번하지 않은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의 이용이 익숙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답변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학년들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보다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2, 3, 4학년들이 주로 답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17.9%를 차지한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이용한다는 답변으로 보아 Web 2.0의 기술이 Library 2.0과 OPAC 2.0에 영향을 줌으로써 몇몇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온라인 서점처럼 서비스 제공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타'가 14.3%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기타'의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⁸⁾

- 도서열람 접근성이 용이하다. (1명)
- (단순히) 도서획득이 가장 쉽고 편리하다(무료 대출 가능). (14명)
- 책이 가장 많다. (1명)
- 학교에서만 검색을 한다. (1명)
- 주로 대출하기 때문이다(특히 온라인목록이 편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명)
- 거리가 가깝고 편하다. (3명)
- 전공 관련 책들이 다양하다. 책 권수도 많이 소장되어 있어 급할 때 찾기 편리하다. (1명)
- 직접 도서관으로 가서 찾는 책을 살펴볼 수도 있고 관련도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명)

‘기타’의 답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도서획득의 편리성’이다. 소속 대학도서관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도서가 필요할 때 바로 열람 및 무료 대출을 할 수 있는 점을 ‘도서획득의 편리성’으로 제시하였다.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 특별히 편해서 이용하기 보다는 단순히 ‘도서를 대출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답변도 있으며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한다는 답변도 있다. 결국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장 높은 %를 차지한 ‘익숙함’과 기타의 답변에 나타난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익숙함’이라함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편안함이라 할 수 있으며 ‘편리함’이라 함은 온라인목록을 통해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제공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함이 아닌 단순히 소속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로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편리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들도 ‘단순히 도서획득이 가장 쉽고 편리하다.’라든지 ‘특별히 온라인목록이 편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이다.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이용하는 도서검색 정보원으로 ‘인터넷 검색엔진’과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가 각각 52.9%, 4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인터넷 검색엔진은 도서에 대한 다양한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점 또한 이용자 평가나 서평 등을 통해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은 하나의 검색으로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인터넷 검색엔진과 온라인 서점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위에서 설명한 ‘익숙함’이나 ‘편리함’으로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온라인 서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에 적용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편리함’으로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OPAC 2.0 서비스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인터넷 검색엔진과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로 ‘이용방법이나 검색화면

28) 유사한 답변들은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였음.

및 결과화면이 이용에 익숙하다.’가 각각 42.1%, 37.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과 온라인 서점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또는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들을 빈번하게 이용함으로써 이용방법이나 검색화면 및 결과화면이 이용에 익숙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신뢰할만한 도서정보를 검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는 각각 2.1%, 1.5%를 차지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도서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도서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도서를 선별하여 구입 및 제공하는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도서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인터넷 검색엔진과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과 학술 사이트 이용 비율보다 낮은 것이다. 인터넷 검색엔진과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기타’ 답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인터넷 검색엔진 이용에 대한 ‘기타’ 답변들이다.

-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나 학술기관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2명)
- 인터넷 접속 시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이 검색엔진이기 때문이다. (2명)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나 학술기관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인터넷 검색엔진에 익숙해져서 다른 정보원에 관심이 없어 이용하지 않아 이용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나 학술기관 사이트 이용방법에 관한 이용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인터넷 접속 시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이 검색엔진이기 때문이다.’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메일을 먼저 확인하거나 뉴스를 접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엔진을 메인화면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로 접속하여 도서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다. 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통해서 메일확인이나 뉴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도서관 온라인목록을 메인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기타’ 답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검색 후 구매가 용이하다. (5명)
- 베스트셀러 검색을 통한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다. (1명)
- 단순 서지사항만 있는 도서관 사이트와 달리 구매자의 리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명)
- 보통 도서를 검색하는 것은 구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할인을 받거나 회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편이다. (1명)
- 도서관에 없는 도서검색이 가능하므로 (1명)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구매’이다. 온라인 서점의 특징인 도서 검색 후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에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참여 방법 중 하나인 ‘구매자의 리뷰’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최신 도서 경향과 도서관에 없는 도서검색을 하기 위함도 온라인 서점의 이용 이유들이다. ‘구매자 리뷰’ 방법은 ‘이용자 서평’과 같이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베스트셀러 제공이나 도서관에 없는 도서 검색은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에서 풍부한 도서 콘텐츠 내용에 포함시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이용자들이 온라인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검색 정보원으로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포함한 기타 학술기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도서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이 5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술기관이라 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같은 기관들로 일반적으로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통해 소장도서 검색이 가능한 기관들이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및 학술기관이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도서를 선별 및 구입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용 이유는 ‘기타’ 답변으로도 제시하였다.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44.1%를 차지하였다. 학술기관 사이트도 인터넷 검색엔진과 온라인 서점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Web 2.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목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정보원으로 이용률이 높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과 네 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포함한 기타 학술기관 사이트’의 이용 이유 중 한 가지가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점점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과 학술기관 사이트도 Web 2.0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검색엔진의 특징을 적용시킨 OPAC 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은 Web 2.0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검색엔진의 기능을 적용시킨 OPAC 2.0으로 변화 및 개선되고 있다. 이에 중요한 것은 대학도서관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OPAC 2.0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PAC 2.0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중요도 인식과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게 되는 정보원과 그 이유에 대한 사항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은 본 연구를 위해 제시된 OPAC 2.0 19개 서비스 중 14개 서비스에는 '중요함'을 그리고 나머지 5개 서비스에는 '보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함'이라 인식하고 있는 14개 서비스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온라인목록의 기능을 포함하여 정확한 검색결과를 위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으며 풍부한 콘텐츠와 통합검색결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통'이라 인식하고 있는 5개 서비스에는 '다른 사람이 대출한 자료'라는 추천 서비스, 태그 서비스, 유사검색 그리고 다른 키워드 제안이라는 다른 이용자들의 검색결과를 참조하는 간접적인 서비스였으며 검색항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서비스에 관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점'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 즉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풍부한 콘텐츠'와 '검색어 관련' 요구 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통합검색', '검색결과 제공 방법'이 있으며 기타 의견에는 '검색결과가 너무 복잡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검색결과를 획득하는데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이용자들이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으로는 1학년은 '인터넷 검색엔진'이 2~4학년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넷째, 전체 이용자들의 정보원 이용 이유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의 '이용방법이나 검색화면 및 결과화면이 이용에 익숙하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인터넷 검색엔진'과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률이 높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포함한 기타 학술기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신뢰할 만한 도서정보를 검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각각의 정보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전체 이용자들이 각각의 정보원을 이용하는 이유 중 '기타'에 제시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이용하는 이유는 '도서획득의 편리성',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이트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인터넷 접속 시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이 검색엔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도서 구매'를 기타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조사 분석 및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이 '중요함'이라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검색결과'이다. 이를 도서관측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보통'이라 인식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검색결과를 참조하는 간접적인 서비스는 각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이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 서비스에 관한 불편 사항이나 개선점'으로 '풍부한 콘텐츠'와 '검색어 관련', '통합검색' 그리고 '검색결과 제공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아 아직도 부분적으로 대학도서관들이 Web 2.0을 기반으로 한 OPAC 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열람 및 대출을 통한 '편리함'이 아닌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편리함'을 위해 그리고 시대와 도서관 환경에 맞는 OPAC 2.0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들이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익숙함'이나 언제든지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편리함'이다. 그러므로 온라인목록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이유인 하나의 검색에 대해 다양한 검색결과를 제공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검색엔진과 같은 '편리함'을 온라인목록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찾는 도서정보를 온라인목록으로부터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익숙함'과 두 가지 의미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터넷 검색엔진의 편리한 기능을 적용시킨 OPAC 2.0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기타 답변으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가 있다. OPAC 2.0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도서관 이용교육 시 도서관 온라인목록 및 관련 학술기관 사이트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응답자가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OPAC 2.0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참조할 만한 사항이다.

다섯째, '온라인 서점'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도서구매'이다. 대학도서관 OPAC 2.0도 '온라인 서점'과 같은 '구매' 서비스로의 활발한 연계와 팝업창을 이용한 베스트셀러 '소개'서비스 그리고 도서관에 없는 도서검색 서비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서점에서의 구매 서비스 연계는 현재 소수 대학도서관 OPAC 2.0과 학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도서검색 정보원으로 '인터넷 검색엔진'을 주로 이용하는 기타 이유로 이용자들이 '인터넷 접속 후 맨 처음 접하는 화면이 인터넷 검색엔진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즉 도서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다른 사이트로의 접근이 번거롭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 OPAC 2.0을 통해서도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메일확인이나 다양한 뉴스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도서관 OPAC 2.0을 메인화면으로 설정하여 인터넷 검색엔진 서비스 및 온라인목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도서검색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으로 1학년은 '인터넷 검색엔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2~4학년은 '소속 대학도서관 온라인목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단순히 '익숙함'과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편리함'- 이용자들이 도서검색을 위해 온라인목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도서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사 및 분석 결과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의 다양한 기능들을 온라인목록에 적용시킨 OPAC 2.0을 개선 및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OPAC 2.0 서비스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OPAC 2.0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는 OPAC 2.0 개선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OPAC 2.0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도서관 그리고 관련 연구에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중역, 곽승진.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pp.61-82.
- 구중역, 이응봉. “북마크릿을 활용한 LibraryLookup 서비스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2006), pp.49-66.
- 김태수.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2010).
- 노지현.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목록의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pp.133-153.
- 박미성. “Web 2.0 기술 적용 사이트 분석을 통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pp.139-168.
- 박수희. 대학도서관 온라인열람목록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이동규. 대학도서관 웹 기반 온라인목록의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 Blyberg, John. *The Social OPAC™*, 2008. <<http://www.thesocialopac.net/>> [cited 2011. 12. 13].
- Breeding, Marshall. “Thinking about Your Next OPAC.” *Computers in Libraries*, Vol.27, No.4(2007), pp.28-30.
- Breeding, Marshall. “Next-Generation Library Catalogs.” *Library Technology Reports*, Vol.43, No.4(2007).
- Breeding, Marshall. *Next Generation User Interfaces: Delivering content and services for today's Web-savvy library patrons*, 2008. <http://www.senylrc.org/Marshall_nextgen_interfaces.ppt> [cited 2011. 12. 13].
- Campbell, D. G. and Fast, K. V. “Panizzi, Lubetzky and Google: How the Modern Web Environment is Reinventing the Theory of Cataloguing.”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Vol.28, No.3(2004), pp.25-38.
- Casey, Michael. *Library 2.0 and Beyond: Innovative Technologies and Tomorrow's User:*

- Chap2. Looking Toward Catalog 2.0.* Libraries Unlimited, 2007.
- Hildreth, C. R. *Pursuing the ideal: generations of online catalogs.* In Aveney, B., Butler, B (Eds), *Online catalogs, Online Reference, Converging Trends*(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4.
- Hildreth, C. R. *Advancing toward the E3 OPAC: the imperative and the path,* In Van Pulis, N (Eds), *Think Thank on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Online Catalog.* Proceedings (ALA Midwinter Meeting, Chicago, January 11-12), Reference and Adult Services Divis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1.
- IFLA.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2008.
<http://www.ifla.org/VII/s13/icc/imeicc-statement_of_principles-2008.pdf>
[cited 2011. 12. 26].
- Large, A. and Beheshti, J. "OPACs: a research review."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9, No.2(1997), pp.111-133.
- NCSU Libraries. *Usability Research Lab: NCSU Libraries,* 2006.
<<http://www.lib.ncsu.edu/usability/>> [cited 2011. 12. 22].
- NCSU Libraries. *NCSU Libraries Online Catalog,* 2008.
<<http://www.lib.ncsu.edu/catalog/>> [cited 2011. 12. 22].
- Pattern, D. "Are you happy with your Opac?" *Library & Information Update,* Vol.6, No.10(2007), pp.32-34.
- Schneider, Karen G. *How OPACs Suck, Part2: The Checklist of Shame,* 2006.
<http://www.techsource.ala.org/blog/2006/04/how-opacs-suck-part2-the-checklist-of-shame.html>> [cited 2011. 12. 13].
- Wilson, Katie. "OPAC 2.0: Next generation online library catalogues ride the Web 2.0 wave!" *Online Currents,* Vol.21. No.10(2007), pp.406-413.